

## 영광 ‘버스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운영

매월 2회씩 각읍·면 마을 경로당 방문 민원 접수

영광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 운영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3일 묵향면을 시작으로 각읍·면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로부터 건의·생활불편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동식 민원상담실을 갖춘 버스로 찾아가는 국민신고는 올 연말까지 매월 2회씩 각읍·면을 순회한다.

접수된 민원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처리결과 통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선 인터넷·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인연금, 휴면예금, 여권 만료일, 건강검진일 등 총 67종의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 정보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 운영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 화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권역별 운영… 주민 피해 예방 신속 대응

화순군이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2022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권역별로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을 기동포획단은 농작물 등 피해 신고를 받아 주·야간 순찰 포획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을 피해를 입은 군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3)에 신고,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기동포획단의 활동 지역은 농작

물, 특용작물, 과수피해지역, 농경지 훠손 지역 등으로 포획 대상은 맷돼지, 고라니, 까치, 맷비둘기, 꿩, 오리류 6종이다.

지난해에는 야생 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708마리를 포획했다.

군은 지난달 27일 기동포획단원 38명을 권역별로 선발·구성하고 화순경찰서와 협동으로 총기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동포획단을 권역별로 운영하면서부터 접수와 출동이 신속해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 나주,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8월 31일로 납부 연장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흡 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 지원하고 있다.

/나주=조성준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 사업자는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합평=김정섭 기자

## 담양군, 전국 최초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관’ 조성

### 과기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담양군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기초 단위 생활 밀접공간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메타랜드 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일원에 ‘담양으로 떠나는 생태과학체험’을 주제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입해



전국 최초의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담양이 보유한 생태환경과 지역 특성을 살려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생태자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습지 환경 체험센터 및 생태보존 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외에는 메타플레이랜드를 조성, ‘탐험과 놀이’가 함께하는 생태탐방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담양에 어린이 종합과학체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적 학부인 ESG의 기본가치를 배우는 과학체험 플랫폼을 조성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청의적 인력양성이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담양농·특산물 전문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담다  
담양장터 OPEN

건강한 자연을 담은 담양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장성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은 이들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장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8월 31일 까지 납부를 마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이달 말까지 장성을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을 말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061-390-682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8880, 종합소득세 126)로 연락하면 된다.

## 장흥,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지원화 사업’ 사례 선정

장흥군이 최근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블루이코노미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업에 기여한 우수 지역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흥군은 블루이코노미 중 블루투어 부문인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지원화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다양한 지역축제와의 연계로 치열화된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과 스포츠산업과 연계한 스포츠마카 장흥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노력 등이 높아 평가됐다. 총 길이 42.195km 정남진 해안도로는 장흥군 안양면에서 부

터 회진면까지 연결되어 있다.

2012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개통된 이후, 2019년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장흥 뮤즈웨이라는 테마로 도로의 각 구간마다의 특성을 살려 개발 중에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의 풍부한 청정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개발중인 정남진 해안도로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 함평 관내 취약계층 가구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대상

함평군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된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 전기시설물 안전 관리가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327가구를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누전차단기 설치·관리 현황·전선·콘센트 청결 상태, 노후 전기시설 점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 관련 주택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함평에서 발생한 21 건의 주택화재 중 전기 관련 화재는 5건으로 23%를 차지 했다.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에 발맞춰 ‘황룡강에서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일 황룡강 자전거길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 3학년~6학년 아동 20여 명이 참여해 전문 강사로부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타면서 자신감과 협동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처음에는 계속 넘어져서 속상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속 타다 보니 어느새 훌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서 활蹦웃음을 지으며 뿐 듯해했다.

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는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소통의 공간이다.”면서 다음 달 진행 예정인 역할극을 통한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에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09년에 개소한 장성군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392-2323)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